

# 더 웃고 더 즐겁게 살아야



## 콘스님 편안하십니까

의룡 스님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은 수시로 경전을 읽는다.

새벽 2시.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의룡(義龍) 스님(각황사 조실)의 하루는 시작된다. 껌껌한 밤이지만 서울 불광동 각황사는 환하기만 하다.

“부처님 광명으로 환한 도량이 바로 각황사예요. 그में에도 비가 와도 환합니다. 장마가 쳐도 개울에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요.”

터가 좋은 까닭일까. 서울 인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과 깨끗한 산자락을 20여분 걸어 도착한 각황사. 스님은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말간 물을 한 잔 내밀었다. 갈증이 나기도 해서 얼른 마신 물은 차지도 않았고 달콤한 맛이 났다. “각황사 계곡물이 내 건강 비결이여. 물이 좋으니 밥을 지어도 맛있고 차를 달여도 맛있지. 내가 40여년을 한결 같이 여기 물을 마셨지만 한번도 탈 난 적이 없어요.”

새벽 2시에 시작되는 스님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들었다. “<화엄경> 등 경전을 읽다가, 참선도 하다가, 베고프면 밥 먹고, 곤하면 잠자고, 심심하면 산 한바퀴 돌곤 합니다. 방선이 바로 그거예요.”

스님의 건강이 궁금했다. 기자가 허벅지며 올라간 20분 거리 산자락을 스님은 밤에도 손전등 없이 오

른다고 했다. 쉬엄쉬엄 경전을 읽는 스님은 시력도 좋아 보였다.

“나이 70이 넘도록 병환 다닐 일도 없고 약 먹을 일도 없으니 얼마나 건강한 것이냐”며 스님은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건강관리를 묻자 대뜸 직지사에 있을 때 일화를 들려준다. “후원에서 강주스님은 잡숫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난 한 가지만 먹어요. 그날 밥상을 보고 김치를 먹어야겠다면 김치로 밥을 먹고, 된장만 먹어야겠다 하면 된장국만 먹습니다.”

스님의 소식(小食)은 바로 건강으로 이어졌다. 비결은 다른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 늘 웃음 떠나지 않는 ‘낙행주의자’

“파 마늘 없고 비린 것이 없으면 잘 먹는다”는 스님은 김 두부 된장국을 좋아한다. 스님의 밥상은 소재로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스님을 만난 첫 인상은 전진불 그 자체였다. 스님의 웃는 모습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이상으로 그 모습을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할 정도다. 스님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웃음과 환희의 흔적이다. 주름 하나하나에도 웃음의 자국만이 남아있다.

스님이 자주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낙행(樂行)주의자다. “항상 웃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즐거우니까 웃는 겁니다.” 기자와 마주하는 시간 내내 스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스님은 당신의 낙행을 부처님이 견성성불하기 위해 했던 수행법이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고행을 6년 했다는 것은 알아도 낙행 6년 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스님이 말하는 낙행은 바로 부처님이 수행했던 여래선이다. “여래선으로 선정에 드신 부처님은 환희지에서부터 즉 즐거움에서부터 삼매에 빠져들어 성불의 경지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래선 얘기가 나오자 스님의 목소리 툭툭 터져나온다.

괴로운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스님은 그래서 더 웃고 더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님은 몇 년 전 직지사 강원에서 화장을 그만두고 올라왔다. 서른 되던 해에 부처님 광명이 머무는 땅이라는 불광동 지명이 좋아 지었던 사찰 각황사

는 책 들 곳이 마땅찮았다. 그래서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터를 잡아 서재 삼아 미륵당을 꾸렸다.

수 만권에 이르는 스님의 책들은 미륵당에 있다. “미륵당은 편히 쉬는 내 서재예요. ‘자심나야(慈心藥岩)’라 이름지었죠.” 미륵당은 유불선 삼교의 책 수 만권으로 가득 차 있다. 스님은 동양 사상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유교경전들도 다 갖춰놓고 수시로 읽는다.

오늘 스님은 너무 바쁘다. 여기 저기 법문을 청하는 곳이 많아서다. 전국 각지 불려주는 곳에는 모두 발걸음 한다. 법문 요청이 많은 주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를 법문하러 다닌다. 전국각지를 다니는 스님의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 사람은 어릴까.

“욕심만 버리면 다 극락세계”라는 스님의 대답에 가슴앓했다. 어느 절이든 다 좋다는 스님은 정작 절 구경은 많이 안다시는 편이라고 한다.

단풍이 아름답다는 내장사도 안 가봤고 백양사는 일이 있어서 들리기는 했지만 그나마 밭이어서 풍경을 볼 틈이 없었다고. 경치 좋다는 설악산도 안 가봤다는 스님이다. “앉아서 다 보는데 봉우리가 높고 낮고, 어느 절의 환경이 수행에 적합한지 직접 찾아다니면서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스님의 결론이다. 가본 절에는 의정부 소요산 자재암이 가장 좋았다고 스님은 말한다.

### 길도 없는 곳에 절 짓고 정진

산책에 나서면 스님은 꼭 불진(佛塵)을 든다. “평소에도 불진을 자주 들고 계사나”는 질문에 산책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닌다는 답변이 나온다. “사실 이 근처에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불진으로 휘휘 휘두르면서 파리나 쫓지.” 천연덕스러운 스님의 말투에 절 마당에 있던 신도들과 웃음꽃이 한바탕 피어오른다.

밤 9시가 되면 의룡 스님의 하루는 끝이 난다. 발뻠으면 꼭 차는 조그마한 방에서 스님은 5시간 남짓 자는 것도 길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가끔 스님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어기는 날이 있다. 고전 프로그램 특히 사극을 좋아하는 스님이 MBC 드라마 ‘신돈’을 보기 때문이다. 스님은 신돈을 오승이라고만 보지 않는다. 고려말 개혁 의지를 불살랐던 그를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불 꺼진 스님 방을 뒤로 해도 여전히 각황사는 환했



스님은 수시로 절 주변으로 산책을 나간다. 일반인들에게는 산책이지만 스님에게는 산책도 곧 선이다.

다. 예전에는 각황사까지 가는 길이 없었다고 한다. 스님이 절을 지을 때만 해도 계곡을 따라 바위를 밟으며 밭이 젓도록 다녔어야만 했다. 길도 없이 다니던 곳에 스님은 절을 짓자마자 오솔길을 만들었다.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내리며 다지고 또 다진 길이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솔길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개울로 다니던 것을 이 절을 지은 후 다들 해에 오솔길을 냈어요. 울도 담도 없었니까 천체 계곡이 다 각황사 도랑이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각황사에 오를 때는 그 길이 스님이 뉘는 길이라는 것을 몰라 그저 아름다운 풍경에만 감탄했었다. 사실을 알고 난 후 내려오던 길은, 스님이 40년 전 만들었다는 그 길은 마치 극락세계를 다녀오는 길인 듯 감동스러웠다.

다시 뒤돌아본 길 끝에서 빈 스님의 모습에서 참 수행자의 얼굴을 엿보는 것 같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절로 나는 하루였다.

글=김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한영·명봉 스님 강맥 이어

**의룡 스님은** 의룡(義龍) 스님은 193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6살에 율곡을 꾸고 용주사를 찾아가 출가해 14살에 일해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탄허·관을 스님에게 교학을 배운 스님은 35세 되던 해에 ‘한영·명봉 스님’의 강맥을 이어 받았다.

일생을 제방 강원의 강사로 살아온 스님은 2002년 직지사 강주를 끝으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30세 되던 해에 창건한 각황사에서 홀로 수행 정진 했던 스님은 직지사 강주에서 물러난 후 각황사를 만상좌에게 넘겨줬다. 2년 전부터 고향인 안성 미륵당에 평소 읽었던 경전과 불서 수 만권을 모아 ‘자심나야’를 꾸며 머물고 있다.

##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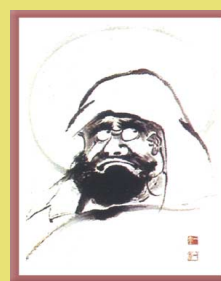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남의 작은 계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창

-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평사에서 구족계, 운곡, 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제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계교구

### 다지도안?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

# “육바라밀 지키고 있습니까?”

## 의룡 스님의 가르침

저는 화두선이 아니라 여래선을 합니다. 여래선은 호흡으로 하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선정에 드는 것인데요. 들이쉬고 1부터 6까지 세면 숨이 머리 정상으로 올라 갑니다. 이것이 흡상승(吸上昇)인데요. 들이마셔서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쉬는 것도 여섯까지 세면 단전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륜을 끌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정수리 위로 올라고 내릴 때 단전까지 내려가게 할 때 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따라 다녀야 합니다.

생각이 법륜이 구르는 것을 따라 다니면 아무 잡념이 없어집니다. 무아의 경지에 들게 되면 이 호흡만으로 몸에서 땀이 나게 됩니다. 무아의 경지에 들면 즐거워요. 즐거운 곳에 머물며 좋은 것만 보게 됩니다.

법륜을 돌리는 속도는 몸의 느낌에 따라서 천천히도 하고 빨리도 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물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고 내쉬는 것은 불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륜을 돌리면 단전이 훈훈하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촉촉하게 납니다. 이때 선정에 드는 것이지요. 불기운과 불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밥 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전을 솥으로 봐도 됩니다. 하단전은 불 때는 아궁이로 보고, 중단전은 솥으로, 상단전은 시루로 봐도 됩니다.

물이 적당히 있어서 도수에 맞게 끓을 적에 시루에 있는 떡이 익는 거잖아요. 물이 적으면 탈 수도 있고 설이를 수도 있습니다. 불과 물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불이 모자라면 풀무질 하듯 호흡을 하고 불이 너무 강하면 불기운을 줄이기 위해 호흡을 해야 하죠. 참선하고 있는 당사자가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온통 화두선만 압니다. 저는 화두선이 나왔기 때문에 도 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화두선은 38대 양산 스님이 제창한 것으로 조사선입니다. 그 전까지 가섭존자 님께서 육조스님 님 여래선으로 수행하셨어요.

그런데 양산 스님이 화두선을 제창했죠. ‘이렇고’ 쉽잖아요. 한 제자가 부처님이 무엇이냐 물으니, 조사가 ‘마른 푼떡대기가 부처’라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제자는 왜 마른 푼떡대기가 부처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부터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를 알았다고 해서 도가 통하는 건가요? 이처럼 의심이 해결됐다고 해서 성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는 숙제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성불이 안 되는 것이죠.

성불할 수 있는 법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원만성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바로 보살행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무수한 보살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다는 말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성취할 때까지 보살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생에서 성불해야겠다 하고 조금씩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무량한 세상을 두고 육바라밀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 무량공덕이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쌓여야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어서 참선하면 성불한다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보시 정진 인욕 선정 등 육바라밀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보시예요. 육바라밀의 가장 첫 번째가 보시예요.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은 악한 행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욕은 괴로움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정진은 게으른 행동을 없애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선정은 산란

### 복 짓지않고 성불하려는 건 모래로 밥 짓겠다는 것



정좌를 하고 여래선법에서의 호흡 흐름을 손으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의룡 스님.

한 생각을 다스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참선은 망상심을, 혼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리석은 것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없애면 지혜가 되는 것이예요.

육바라밀을 지키고 실천하면 복을 키우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됩니다. 무량한 세상을 두고 그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복이 더 커지고 지혜도 커져서 복과 지혜가 완전히 구족해야 성불할 수 있는 거라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을 보면서 정리한 거죠.

저는 법륜을 할 때마다 항상 삼업(三業)을 청정히 해야 복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뜻이 청정할 때 복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을 지키는 것이 몸과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물을 건널때 때는 배를 이용하고 산을 올라가려면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래를 시루에 담고 떡이나 밥을 지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모래를 시루에 담고 불을 때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걸 버려야 해요. 안 될 것을 평생하면 시간과 노력이 손해예요.

무념무상에서 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무심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한 조사들도 있습니다. 무심한 경지는 바로 선정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지 않으면 극미도 부처님 국토도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본래면목(진리)을 볼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도 육바라밀을 닦아 선악이 없는 경지에 올라 공덕을 원만 성취해서서 성불의 밑거름을 두세요.

정리=김지현 기자 · 사진=백철원 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6>



### 원숙한 노년, 저돌적인 청년(상)

관리실 앞에 옆집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정정하고 깨끗하셔서 80을 넘기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밝은 거리에서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깊이 팬 주름살, 지팡이를 짚은 채 달달 떠는 손,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 내느라 그만 벌겍게 짓물라버린 눈가….

왜 밖에 나와 계시냐고 인사를 드리는 나를 아득하게 바라보다 가까스로 누구인지 기억해 내시더니 “이제 늙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구먼, 집 옆શે도 있어버렸고 아이들 휴대폰 번호도 기억이 안 나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내게서 <책근답>을 빌려 가져서서는 “좋은 책 빌려주어 아주 잘 읽었습니다”라며 정중한 인사와 함께 책을 돌려 주신 신사분이었습니다. 평범처럼 올리던 음성도 시간의 김목에서 도둑맞았는지 목소리마저 힘이 없어서 떨렸습니다. 그늘에 앉아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

(走路)는 정해져 있네. 자연의 길은 하나뿐이며, 그 길은 한번만 가게 되어 있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물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이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숲, p.44. 그렇게 다양한 성향의 친구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있으니 청년은 노년에게서 원숙함을 빌리고 노년은 청년에게서 저돌적인 기상을 빌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저돌적인 청년과 원숙한 노년은 서로 짝난 채하면서 나이든 이는 제 나이를 믿고서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을 너희는 몰라. 너희가 안다는 것은 마치 저 반딧불이와도 같다”고 젊은이를 조롱하고, 젊은이는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빌려 ‘늙고 고집불통인데다 완고하고 정신도 흐릿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저러 나서는가?’(송유경)라며 업신여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 원숙한 노년의 지혜와 저돌적인 청년의 기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리는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날 때 자꾸만 마음 한켠이 내려앉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아난존자도 늙어버린 부처님의 발을 어루만지다 발등을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중일아함경), “사람이 늙으면 괴로워지니 머리가 휘어지고 이가 빠지며 눈은 흐릿해서 점점 해지고 귀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며, 왕성했던 기운은 쇠약해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며 온몸의 마디가 쭈시고 아프며, 앉았다 일어날 때는 힘이 들어 신음하니 근심과 슬픔으로 괴로워한다. 정신이 차츰 쇠약해져 오줌을 싸고도 있어 버리고 목숨이 다할 날이 차를 타지 못하네. 이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불설팔사경)라고 하여 부처님도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로서 “늙음”을 말씀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활짝 노년 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어제의 그 상냥한 청춘들이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영원히 청장년일 줄만 아는지 노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리고 노년의 충고를 간단히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고대 로마의 현인인 키케로는 ‘인생의 주로

며칠 전 지하철에서 노약자 우대석에 앉아 있던 한 노인과 청년의 실랑이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톨로 출입문을 열고는 닫지 않고 그냥 지나면 청년에게 노인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인마! 문 닫고 가!” 그러자 청년이 뻔 돌아서 더 큰 목소리로 “에이, XX! 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치더니 그 노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가 멱살이라도 쥘 기세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상성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젊은이는 분한 기색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몇 번 씩씩거리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예절도 모르는 젊은이를 크게 호통 치며 따끔하게 가르치려던 노인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모멸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노인은 애써 태연한 얼굴로 민망함을 감추며 그가 열어젖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젊은이의 무례한 태도는 백 번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조금만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원숙한 노년의 지혜로 젊은이를 불러 세웠더라면…, ‘야, 인마’라는 말 말고도 젊은이를 부를 호칭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지하철을 내리기도 오래도록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 이미경(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5기생 모집

- 대학실업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어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 교과목**
  - 전통의식반 (재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쇠승, 각단에불, 재공의식) ▶ 연구 (재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예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1:00 ~ 15:00
- 교육기간 (6개월)**
  - 원서접수 : 2006년 5월 10일 ~ 5월 27일 ●개강일시 : 2006년 6월 2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특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 문의**  
경기북부총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시간안내**

- 재 목 : 불교범음의식집 ●저 자 : 백철원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총무원 부설 교양대학**

##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 초대형범종의 밀람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헌시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電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입증된 정종사 정종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람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람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람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을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 www.soungjongs.co.kr / E-MAIL : sungjongs@hotmail.com
-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